

효율적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

— 감성적 이타주의와 이성적 이타주의

이진우

우리는 진정한 삶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회적 관계가 설령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삶의 전제 조건인 관계를 맺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이기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인류 전체에 대한 배려가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이타주의적 관점이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양면을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구체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고 또 어느 정도는 이타적이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궁지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갖게 마련이고,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이라도 궁극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인간본성에 관한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이기주의를 전제할 경우에도 그에 바탕을 둔 사회관계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오히려 문제이며, 이타주의를 추구할 경우에도 그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인할 수 없는 이기적 속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타주의가 항상 이기주의와 짝이 되어 논의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행위는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타적일 수도 있다. 이타적인 행위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기주의가 이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오귀스트 콩트가 1851년에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주조하기 이전에도 분명 이타적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그가 이타주의를 이기주의와의 연관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렇게 물어야 한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이타심마저 이기적으로 오용되는 이기주의 시대에 과연 이타주의는 가능한가? 사람들의 선행은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의 삶과 사회의 선을 증대시키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이타주의를 실행해야 하는가?

이타주의는 어느 정도의 자기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이익을 절대화하는 이기주의 시대에 과연 이타주의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우리는 이타주의가 항상 이기주의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타주의를 본성과 동기보다는 행위와 결과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타주의는 타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 복지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진우

연세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에서 철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거쳐 동 대학 총장, 니체전집 편집위원, 한국 니체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포스텍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의심의 철학』, 『니체의 인생 강의』, 『니체, 실험적 사유와 극단의 사상』, 『프라이버시의 철학』, 『지상으로 내려온 철학』, 『도덕의 담론』,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철학』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니체의 『비극의 탄생·반시대적 고찰』,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전체주의의 기원』 등이 있다.

주요 논의 내용

- 서양철학에서 정의하는 이타주의
- 이타주의의 두 판단 근거: 동기와 결과
- 이타적 자기희생의 의미와 한계
- 타인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하는 감성적 이타주의
-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이성적 이타주의
- 오늘날에 요청되는 이타주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성적 이타주의나 이성적 이타주의의 공통점은 모두 타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감성적 이타주의가 타인과의 공감과 동정심을 전제로 윤리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이성적 이타주의는 세상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서적 공감 능력이 유별나게 높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감성적 이타주의와 이성적 이타주의 사이의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적인 재해, 기아와 전쟁과 같은 인위적인 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인류사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등한 사회로 발전해왔다고 하지만, 세계는 남북 갈등, 양극화 사회처럼 심각한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증대시키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풍요 속에 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타인의 고통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타적일 수밖에 없다.

풍요 속의 빈곤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이타주의는 필연적이다. 피터 싱어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은 의무와 자선 사이의 경계를 변화시킨다.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돈을 기부하는 자선행위는 칭찬을 받아왔지만, 자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았다. 우리가 세계 난민기구나 구호기금에 기부금을 내는 대신에 명품 옷과 새로운 차에 돈을 쓴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스러워하지는 않는다. 선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멋있게 보이기 위해 명품 옷을 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명품 옷을 사는 대신에 그 돈을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어떤 것이 과연 윤리적 삶인가?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한다.

일시

2018년 5월 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